

2차 드래프트의 부활. 원년 구단에서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고액 연봉에 부담을 느낀 구단들은 베테랑 선수들을 마케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이 한화 이글스로 이적하는 것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의 새로운 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KT** 위즈와 여러모로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사이드암 우규민이 그 주인공입니다.

2003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2017시즌을 시작과 마무리한 우규민은 4년 65억 원(미화 610만 달러)의 좋은 조건으로 **FA**로서 첫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로 향했습니다.

선발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부상과 팀 사정으로 중도로 돌아섰습니다.

2018년부터 매 시즌 두 자릿수 홀드와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물론 거액의 **FA**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단에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모호한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우태웅이 없었다면 약한 불펜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삼성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태웅은 마흔 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구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T**로 이적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적에 대해 우 감독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아니면 황혼의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까요? "2차 드래프트 부활 소식에

선수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배들과 저도 35명의 보호자 명단을 작성해 미래를 계획했습니다."라고 우 감독은 말했습니다. "성적 등을 고려할 때 35명의 보호자 명단에 오를 것 같아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가 다가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구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KT를 보게 되었습니다. KT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 감독은 "이강철 선수와 정말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우리 투수들을 부업으로 두고 전설적이지 않나요? 넥센 히어로즈 코치 시절에는 그를 찾아가 많은 질문을 하곤 했어요. 늦게 만났지만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LG와 암울했던 시절을 함께한 박경수, 박병호와의 만남도 감동적입니다. "셋이서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프로 데뷔 이후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갖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KT는 우규민이 승리 팀으로서 1회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젊은 투수들이 많은 KT 불펜에서 우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원합니다. KT는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잘 대해줍니다. 또한 불펜은 대부분 젊고 강력한 선수들입니다. 우규민과 KT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 투수를 지명하고 4억 원을 보상금으로 투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몸 상태입니다. 우규민은 "자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여기여](#)

"사실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정을 꾸렸고
후배들과의 애정이 너무 컸습니다. 후배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라고 우 감독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적이
확정되고 나니 다시 이렇게 설렘 줄은 몰랐어요. 오랜만이에요. **KT**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